

# 전남 쌀 수출 성장세 '뚜렷'... 5년간 3배·31개국 확대 전국 수출량 81% 점유... 유럽·중아시아서 인기몰이

전라남도는 최근 5년간 전남 쌀 수출 물량이 약 3배 증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쌀은 해외 원조를 포함해 2021년과 2022년 5만 1천 톤이었던 것이 2025년 10월 말 14만 9천 톤까지 증가했다. 수출액도 2024년 4천631만 달러(신선농산물 수출액 8천365만 달러의 55.3%)에서 올해 10월 현재까지 5천 476만 달러로 늘어 신선 농산물 수출액(8천121만 달러)의 67.4%를 차지하며 비중이 커졌다.

2024년 전남 쌀 수출량은 전국 13만 7천 톤 중 81.1%로 1위를 기록했다. 현재 31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으며 유럽과 중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긴급 쌀 수출 마케팅 추진과 판촉 지원 확대가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쌀값 폭락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미국종합처리장(RPC) 등을 대상으로 포장재와 페레트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해외 전남 상설판매장을 통한 현지 홍보를 집중 추진했다.

시군·농협과도 협력해 몽골,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해 소비층 확대에도 성공했다.

특히 2024년은 유럽 시장 진출이 본격



화된 해다. 오스트리아는 전남도와 유럽 1위 아시아식품 유통업체인 판아시아가 3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확대 협약을 한 이후 2024년 215.6톤을 수출했다. 프랑스는 148톤, 네덜란드는 143.7톤, 카자흐스탄은 80.7톤, 영국은 39.9톤, 아랍에미리트 34톤으로 신규 수출이 빠르게 확대됐다. 헝가리와 체코도 수출이 처음 이뤄지며 시장 저변이 넓어졌다.

기존 수출국도 성장세가 뚜렷하다. 한류 확산으로 한국산 쌀을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는 국가가 늘면서 몽골은 14.4톤에서 519.5톤으로 크게 증가했고 베트남, 뉴질랜드, 러시아, 호주 등에서도 수출량이 고르게 늘었다.

최근 담양군농협 통합RPC에서 '운수대통 쌀 20톤 영국 첫 수출 선적식'이 열리며 전남 쌀의 유럽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한국식 식품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유망 시장이다.

전남도는 쌀 수출 확대를 위해 ▲전남 쌀 수출 안전성 제고사업 1억 5천만 원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37억 5천만 원 ▲수출 기자재·컨테이너 내륙 운송료 지원 등 30억 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유럽은 품질 기준이 매우 엄격하지만 전남 쌀은 맛과 품질, 안전성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며 "더 다양한 국가로 수출을 넓혀 'K-Rice'가 곧 '전남쌀'이라는 인식을 세계 시장에서 확고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 전남도,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소상공인 시장 경쟁력 높여 성과보고회서 25개 기업 81개 품목 개발 성과 공유

전라남도도가 올 한 해 소상공인 브랜드 디자인 개발 사업에 6억 원을 들여 18개 기업의 브랜드 및 포장패키지 53개 품목을 새롭게 개발·리뉴얼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지식재산(IP) 창출종합패키지 사업을 통해 7개 기업, 28개 품목의 지식재산 등록 성과도 도출하며 소상공인의 시장 경쟁력 기반을 강화했다. 전남도는 11일 동부청사에서 2025년 소상공인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최종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역 25개 기업, 81개 품목의 디자인 개발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선 전남도, 전남테크노파크, 사업 참여기업,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간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민철 전남지식재산센터장은 "기업별 맞춤형 종합 디자인 솔루션을 통한 BI·CI 개발, 제품 패키지 디자인, 상표 등록 등은 소상공인의 제품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기업과장은 "제품 디자인은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시장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12일까지 동부청사 1층 로비에서 올해 개발된 디자인 성과품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신영길 기자

## 전남도, 여수 석유화학 위기 대응 전략 머리 맞대 산업계·연구기관 등 참여 협의체 확대회의서 구조조전 전략 논의

전라남도는 12일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협의체 확대회의를 열어 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추진한 주요 지원성과를 점검하고, 남사크래킹센터(NCC) 설비 감축에 따른 대응 등 구조조전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전남도와 여수시, 산업계, 연구기관, 노동계, 시민단체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해 현재 위기 상황과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여수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최대 단일 화학단지로서 전남 경제의 핵심 기반이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수출 부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복합 요인으로 생산·수출·고용 지표가 동시에 악화되며 구조조전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주요 기업의 2025년 2분기 생산액은 전년 동기의 10.4% 줄었고, 같은 기간 수출액도 13.9% 감소했다. 고용률은 64.2%로 0.5%p 하락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44% 이상 증가했다. 플랜트 건설노조 조합원 수도 전년보다 61% 줄어드는 등 산업 전반의 일감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여수지역 NCC 4사의 기초유분 생산 가동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설비 감축·공장 폐쇄 검토 등 자구노력이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석유화학 구조개편 3대 방향'에 따라 국내 NCC 설비 270~370만 톤 감축이 예상되면서 지역 고용과 협력업체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은 구조조정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재편, 구조조정, 규제특례, 세제지원,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패키지로 추진할 수 있어 여수지역 기업이 진행 중인 전환투자와 공정효율화 사업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역 핵심 현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총 27개 사업, 약 7천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며 기업 지원과 고용 유지·회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또한 4조 6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대전환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탄소포집·이용·저장(CCUS)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인공지능 전환(AI) 실증단지 조성 등 중장기 구조조전 전략도 함께 펼치고 있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구조조전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특별법 후속조치와 '석유화학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추진, 국고 확보를 통해 여수지역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 전남도, 북극항로시대 여수·광양·목포항 미래 발전 모색

### 해양항만활력추진단 토론회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전라남도는 12일 목포 오션호텔에서 2025년 해양항만활력추진단 토론회를 열어 북극항로시대를 맞아 여수·광양·목포항 등 전남지역 무역항의 발전 전략과 정책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전남도와 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주요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현덕(순천대 문리학과 교수) 전남도 해양항만활력추진단장은 '북극항로 시대 여수·광양항의 전략적 접근 방안' 발표에서 "여수·광양항은 산업기반, 지리적 이점, 스마트·그린 혁신 잠재력 등을 갖춘 북극항로 특화항만으로서 전략적 포지셔닝, 기술 혁신, 러시아·북유럽 항만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여수·광양·목포항의 발전을 위한 여러 전문가가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임영태 국토연구원 박사는 "여수·광양·목포항이 발

전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물류 중심 기능을 유지하되, 항만배후단지를 상업·주거·업무·연구개발(R&D) 기능을 결합한 복합단지로 고도화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화영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는 "재생 에너지100(RE100),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산업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남에 유치된 오픈AI 데이터센터와 국가AI컴퓨팅센터 역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이 필수고, 해상풍력 발전 수요도 크게 늘어 화원산단의 해상풍력 배후단지와 전용부두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여수·광양·목포항의 부두 인프라 개선과 자동화 추진, 항만-산단 연계 물류체계 강화,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전남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각 항만의 물동량 구조와 지



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항만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여수·광양항을 친환경, 스마트·자동화 항만 인프라를 강화해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 원유와 석유화학 등 대규모 액체·벌크 화물 중심의 물동량 구조를 반영해 에너지·자원 물류 중심항만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목포항은 해상풍력·자동차 화물 등 산업 지원과 해양관광 기능 강화를 통해 서남권 핵심산업 지원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산업 지원을 위해 철재부

두와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내항 재개발과 전수공간을 조성해 복합항만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항만은 에너지·해상풍력·산단 물류 등 미래 전략산업과 맞닿아 있어 국가 물류체계에서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토론 내용을 토대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전남지역 항만의 핵심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일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